



numbers

vol. 291

한국교회의 정신건강 문제 인식/대응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겪고 있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21대 대선 득표율 분석

2025. 6. 1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겪고 있어!

한국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이가 이제 더 이상 낫설지 않다.

그만큼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다.

이에 이번 넘버즈 291호는 '한국교회 정신건강 조사' 결과(목회자·출석교인 대상)를 바탕으로 교회 안팎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현재 목회자/성도의 정신건강 현황, 치료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접근과 교육 수요 그리고 실제 돌봄 실태까지 폭넓게 조명하였다.

특히 성도와 목회자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둘러싼 시선의 차이와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 보았다.

이번 조사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시선이 보다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더 나은 돌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정신건강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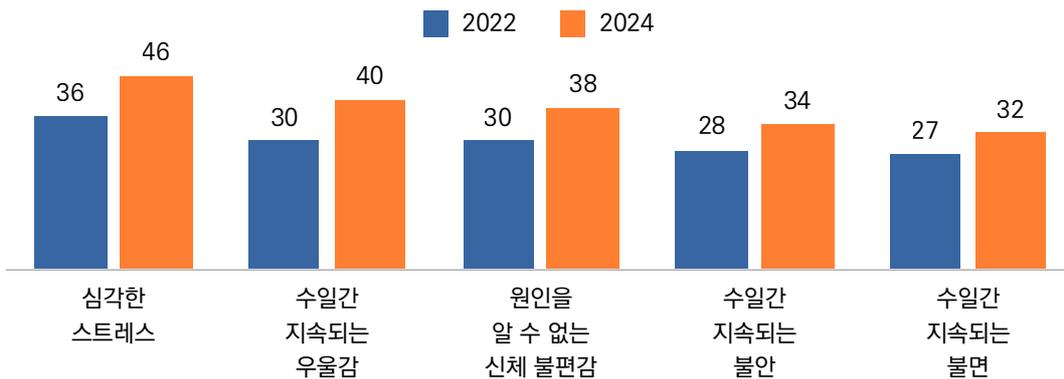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1000명 조사의 경우)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3일 (총 11일간)	2024년 5월 23일 ~ 6월 3일 (총 1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기아대책 / 월드비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정신건강 문제 현황] 우리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지난 2년 사이 더 악화!

-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일까? 15개 정신건강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경험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40%,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 38% 등의 순이었다.
- 지난 2년 사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 정신건강 전 영역에서 문제 경험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의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15~69세 국민,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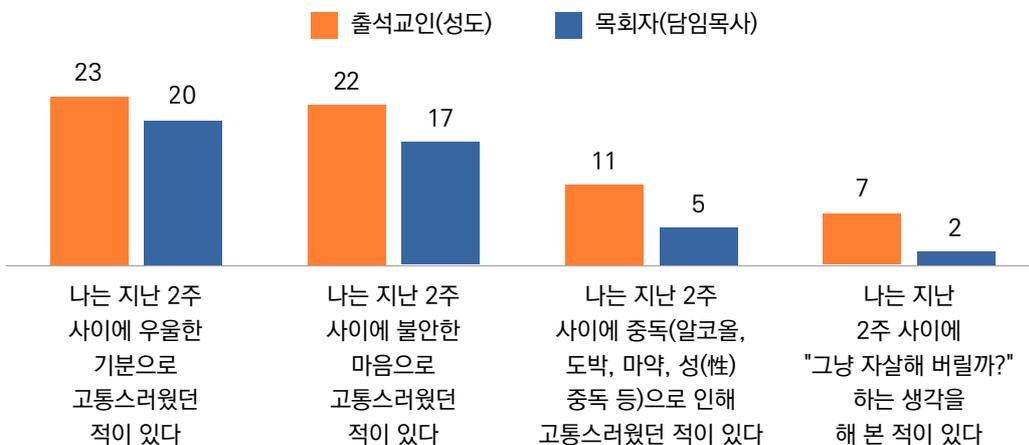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2024.05.22. (전국 만 15~69세 3,000명, 온라인 조사, 2024.04.09.~04.16.)

성도 5명 중 1명 이상, 현재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겪고 있어!

- 현재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성도의 경우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 '지난 2주 사이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22%로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회자의 우울/불안 경험률은 성도보다는 3~5%p가량 낮았다.
- 한편 성도들의 '자살 충동' 경험률은 7%로 적지 않았으며, 성도 10명 중 1명(11%)은 현재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현재 정신건강 상태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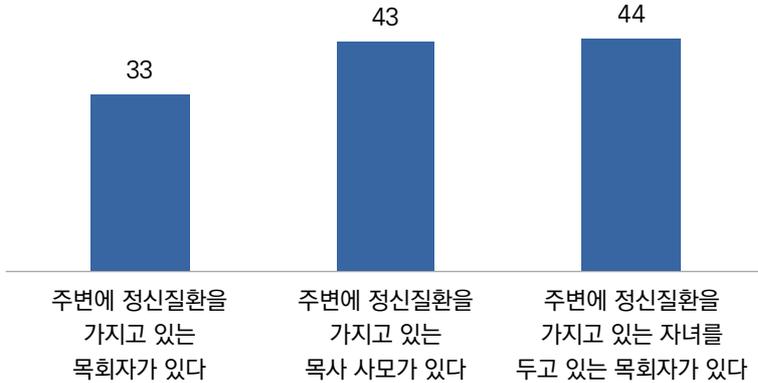


*4점 척도

담임목사, ‘주변에 정신질환 갖고 있는 목사 사모 있다’ 43%

-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주변 목회자·사모·목회자 자녀의 정신질환 여부를 묻은 결과,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 ‘주변의 목사 사모’(43%), ‘목회자 자녀’(44%)의 정신질환에 대한 응답률은 40%를 웃돌아, 목회자 가정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가 적신호임을 보여준다.

[그림] 주위 목회자의 현재 정신질환 여부 (담임목사,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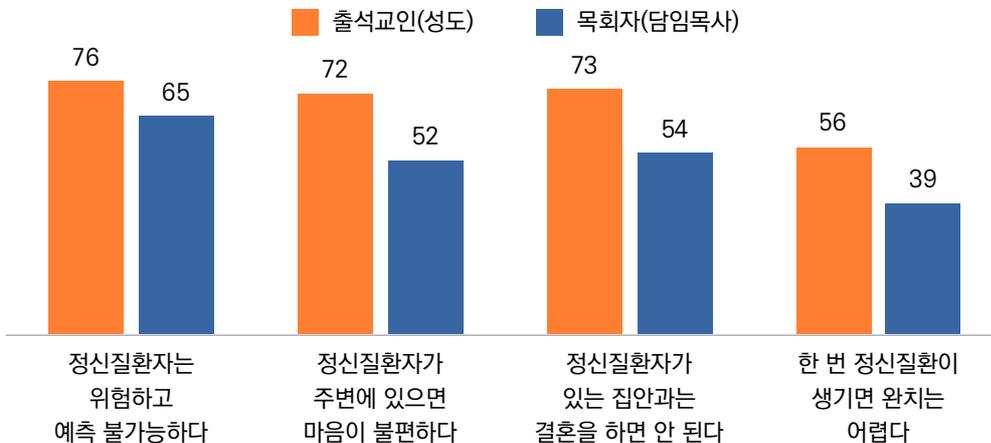
*4점 척도

02

[정신질환에 대한 교회 공동체 인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목회자가 성도보다 적어!

- 정신질환자에 대한 성도와 담임목사의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목회자보다 부정적 인식(편견)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항목에 대해 성도 76%, 담임목사 65%가 동의해 목회자가 비교적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또,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안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에 성도는 각각 72%, 73%의 높은 동의율을 보인 반면 담임목사는 52%, 54%로 목회자와 성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소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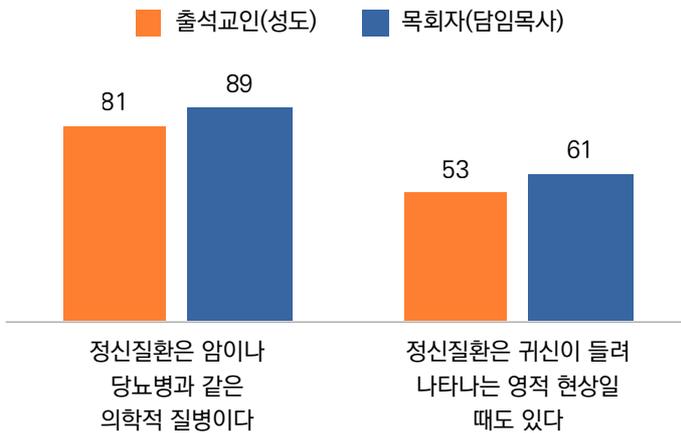


*4점 척도

담임목사 절반 이상, '정신질환은 귀신이 들려 나타나는 영적 현상일 수 있다'!

- '정신질환은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의학적 질병이다'에 대한 동의율은 성도와 담임목사 그룹 모두 80%대 이상으로 정신질환을 '의학적 질병'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뚜렷했다.
- 한편, '귀신이 들려 나타나는 영적 현상일 때도 있다'에는 두 그룹 모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임목사(61%)가 성도(53%)보다 영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그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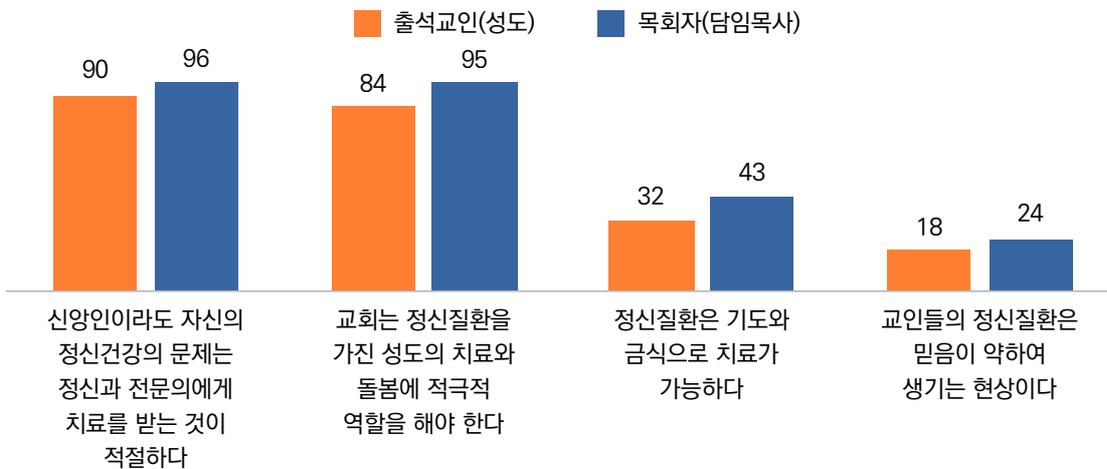


*4점 척도

성도, '교회가 정신질환 가진 성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 84%!

- 신앙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성도와 목회자(담임목사) 모두 정신건강 치료에 있어서 전문의를 통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성도 90%, 담임목사 96%), 교회가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성도 84%, 담임목사 95%)는 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 반면, '정신질환은 믿음이 약하여 생기는 현상이다'에는 목회자 24%가 동의해, 목회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신앙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신앙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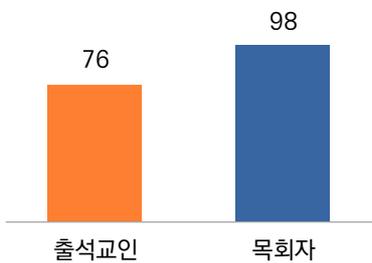
*4점 척도

03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교육 수요] 정신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행동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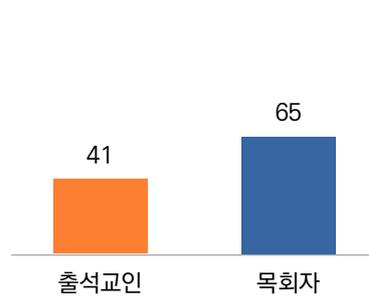
- 정신건강 지식/정보 관련, '나는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한다'에 대해 성도 76%, 목회자 98%가 동의해 두 집단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특히 목회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워 정신건강에 대한 학습 의지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실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은 목회자의 65%, 성도의 41%만이 '있다'고 응답해, 관심에 비해 실제 정보 탐색으로 이어진 비율은 각각 3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 이는 성도와 목회자 모두 정신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활용하는 데에는 부족한 상태여서 교회에서의 교육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나는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한다' 동의율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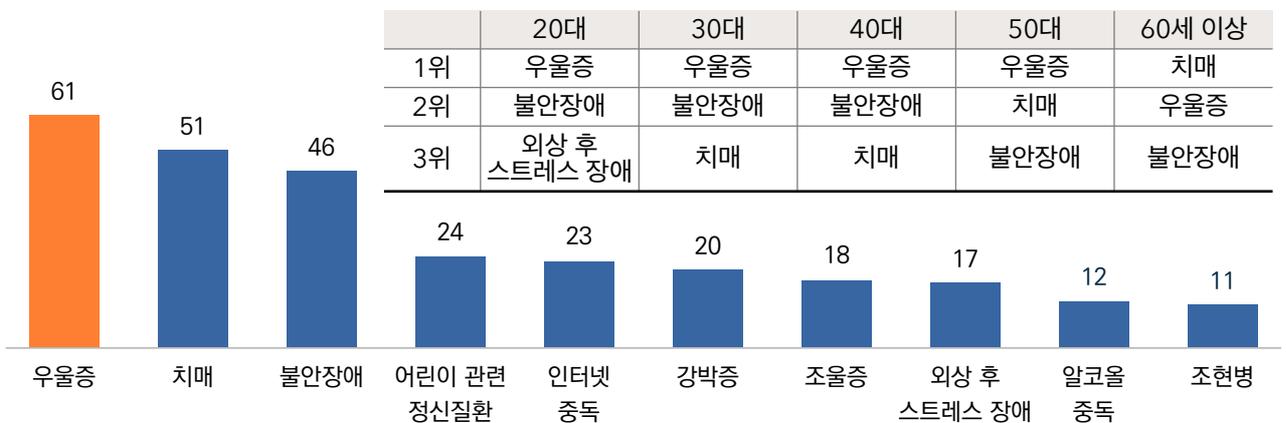
[그림] 정보 수집 경험을 ('있다' 비율, %)



교육받고 싶은 정신건강 질환 3종, '우울증·치매·불안장애'!

-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받기 원하는지를 물은 결과(1+2+3순위), '우울증'(6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치매' 51%, '불안장애' 46%, '어린이 관련 정신질환' 24% 등의 순이었다.
- 교육받기 원하는 정신질환 내용은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우울증'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60대 이상'은 치매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림] 교육받고 싶은 정신질환 (출석교인, 1+2+3순위,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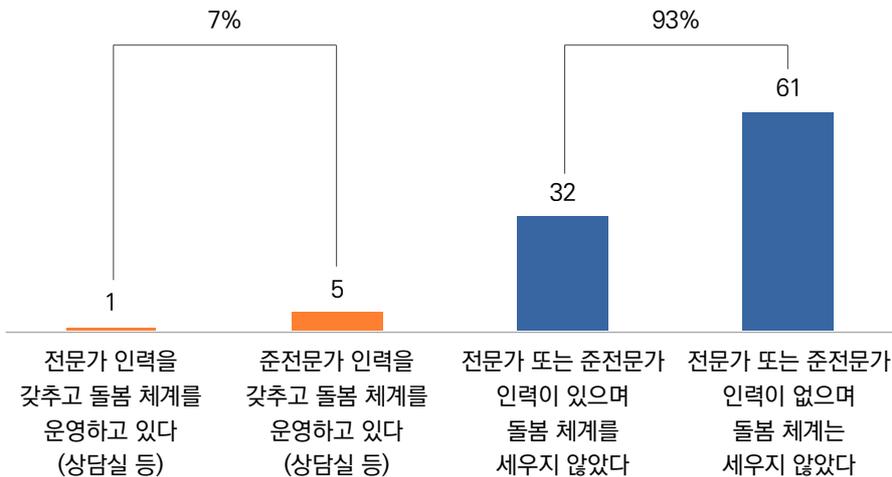


04

[교회 내 대응 실태] 한국교회, 정신질환자 돌봄 체계 아직 미흡!

- 담임목사에게 교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교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 이력을 갖추고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교회의 7%에 그쳤고, 대다수 교회(93%)는 '인력이 있으나 돌봄 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32%), '인력도 없고 돌봄 체계도 세우지 않은'(61%)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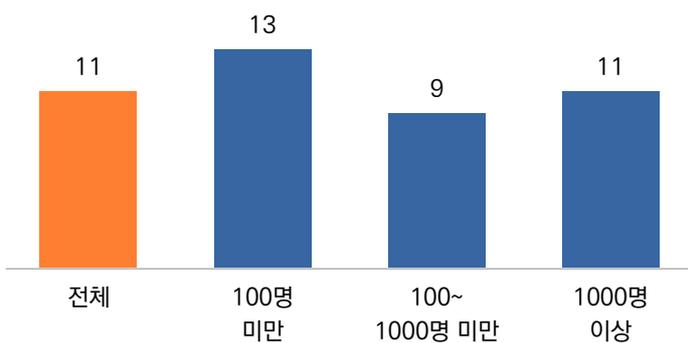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 여부 (담임목사, %)



교회 차원의 정신질환 교육, 11%에 불과!

- 이번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정신질환,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있다'는 11%에 불과했고, 교회규모별로도 교회규모와 관계없이 정신질환 관련 교육 경험률은 10% 안팎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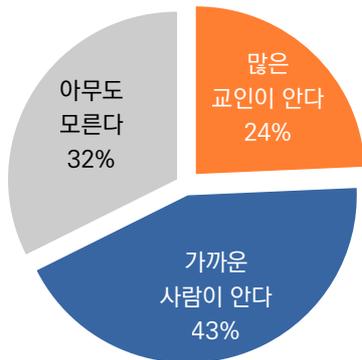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정신질환/건강 교육 여부 (출석교인, '있다' 응답률,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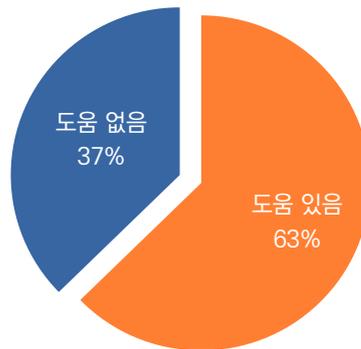
정신질환을 주변에 알린 교인, 교회의 기도와 관심 등 도움 받았다 63%!

-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질환을 주변 교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가까운 사람만 안다' 43%, '아무도 모른다' 32%, '많은 교인이 안다' 24%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인 4명 중 3명(75%)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를 꺼리거나 일부 가까운 지인에게만 알리는 등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정신질환을 교인이 아는 경우, 도움이 있었을까? '도움 있음'이 63%로 '도움 없음'(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인의 인식이 여전히 보수적이지만(위험하고 예측 불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린 경우 실제적인 기도와 지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정신질환에 대한 교인의 인지 여부
(출석교인, 정신질환이 있는 자)



[그림] 정신질환에 대한 교인의 도움 여부*
(출석교인, 교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지하는 경우)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성도 5명 중 1명 이상, 현재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겪고 있어!

- 성도의 경우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 23%, '지난 2주 사이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22%로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도 대부분,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돌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성도의 84%, 목회자의 96%가 '교회가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를 돌보고 치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해, 두 그룹 모두 교회가 정신질환 성도들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었다.

3. 교육받고 싶은 정신건강 질환 3종, '우울증·치매·불안장애'!

-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받기 원하는지를 묻은 결과, '우울증'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치매' 51%, '불안장애' 46%, '어린이 관련 정신질환' 24% 순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마음여행 외 7명, 두란노서원)

관련 성경 구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목회 적용점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가 더이상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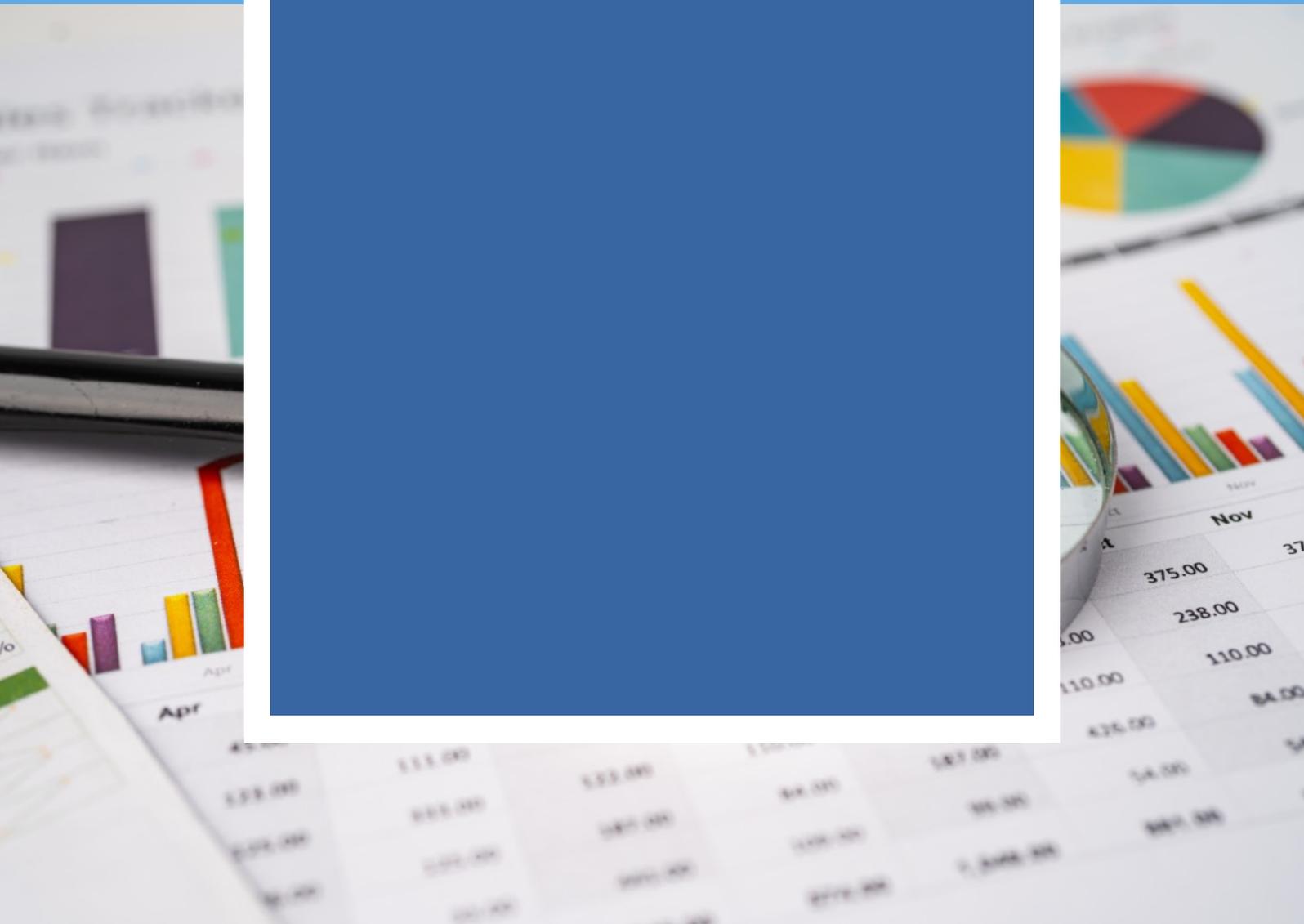
첫째, 교회는 세대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설교 및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실제로 20~50대는 '우울증'에, 60대 이상은 '치매'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은 만큼, 연령대별로 다른 욕구를 반영한 교육과 돌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성경적 관점에서의 설교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공황장애/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을 교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신앙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은 회복과 위로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자체적으로, 소형 교회는 지역 교회 간 연합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인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교회 내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정신질환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나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전문가 인력 풀과 체계를 모두 갖춘 교회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회는 기독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대상 정신건강 기초교육 의무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1대 대선 득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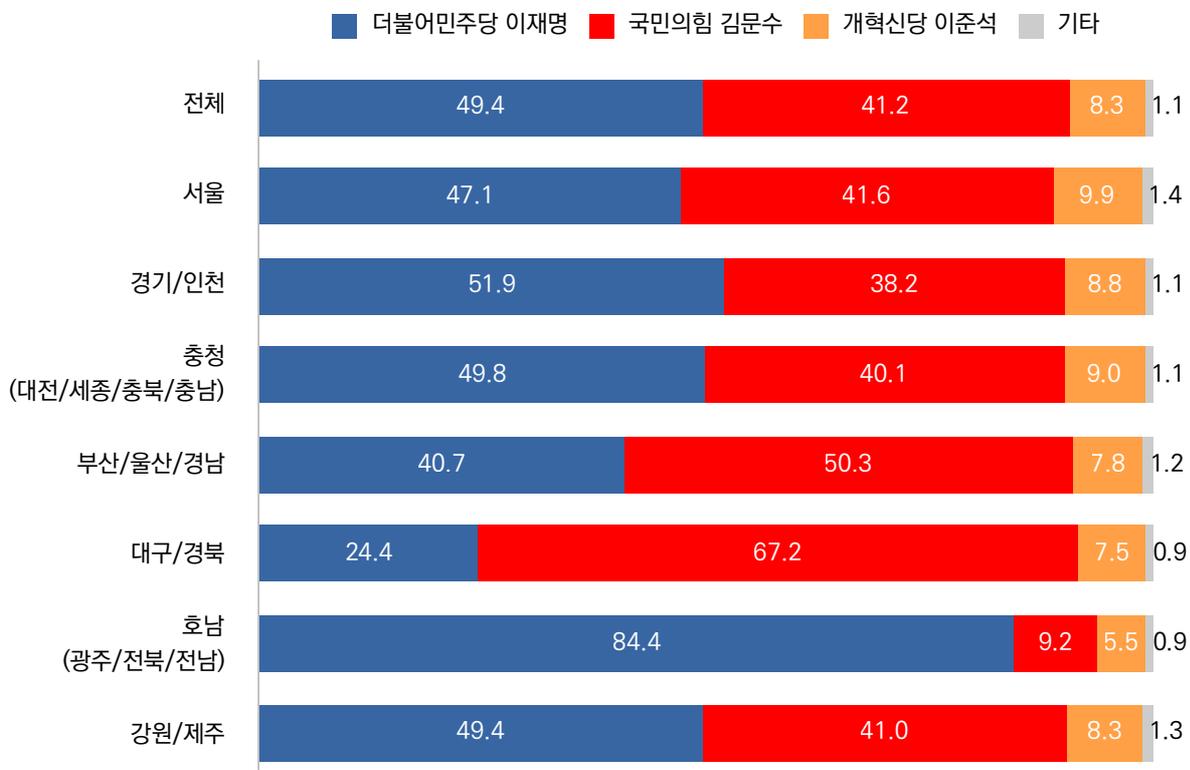


[21대 대선 득표율 분석]

21대 대선 결과, PK(부산/울산/경남)·TK(대구/경북)지역만 '김문수'가 앞서

- 21대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표심은 지역별, 연령별로 어디를 향했는지 살펴본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각 후보의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3%로 집계됐다.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84.4%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에서는 과반을 득표했다.
- 김문수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 지역에서 50%를 넘었고,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 이준석 후보는 서울(9.9%)에서 1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림] 지역별 후보 득표율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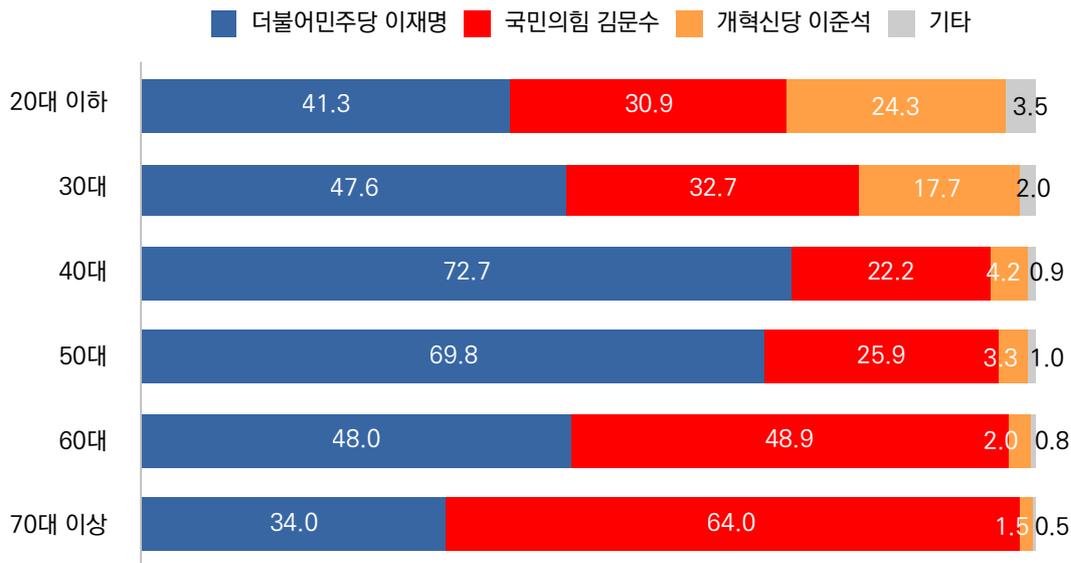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1대 대선 특집] 득표율 분석, 2025.06.11.

50대 이하는 ‘이재명’, 70대 이상 ‘김문수’에 투표!

- 21대 대선 연령별 후보 득표율을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기준으로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50대 유권자에게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0세 이상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70% 안팎의 압도적 표심을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3명 중 2명 가량(64%)의 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6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각각 48.0%, 48.9%로 거의 동일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21대 대선 연령별 후보 득표율 (방송3사 출구조사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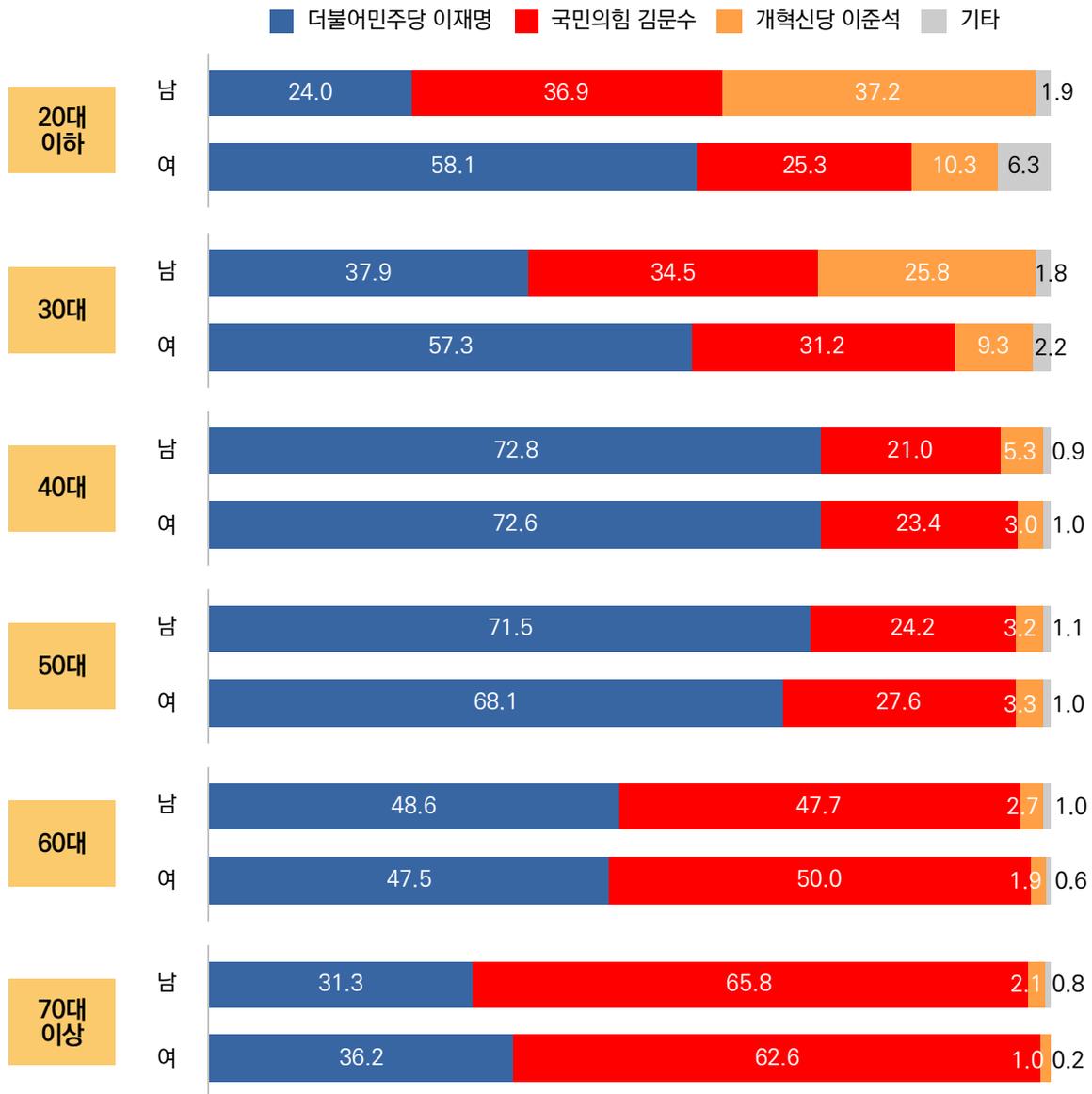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이대남 37%가 이준석... 이대녀는 58%가 이재명, 2025.06.04.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6/04/IRWH55RMK5EJLOQJJCXQZDARRU/?utm_source=chatgpt.com)

특히 20대에서 남녀 간 투표 후보 극명히 갈려!

- 이번에는 성·연령별 후보 득표율을 살펴보았다. 40대 이상부터는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20~30대에서만 남녀 간 투표 후보가 극명히 갈린 점이 주목된다.
-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3위로 처지고, 이준석 후보(37.2%)와 김문수 후보(36.9%)가 접전 양상을 보인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이재명 후보(58.1%) 지지율이 타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37.9%)가 '김문수 후보'(34.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가 절반 이상(57.3%)으로 김문수 후보(31.2%), 이준석 후보(9.3%)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대 대선 성·연령별 후보 득표율 (방송3사 출구조사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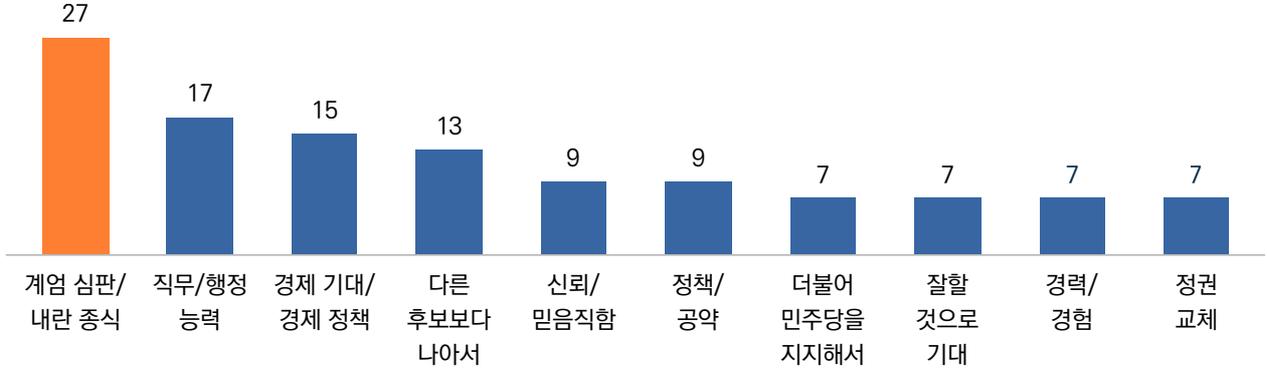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2025 대선 성별·연령별 출구조사 결과, 2025.06.03. (<https://www.yna.co.kr/view/GYH20250603000500044>)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계엄 심판/내란 종식'!

-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를 묻은 결과,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직무/행정 능력' 15%, '경제 기대/경제 정책'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이재명 투표자, 중복응답,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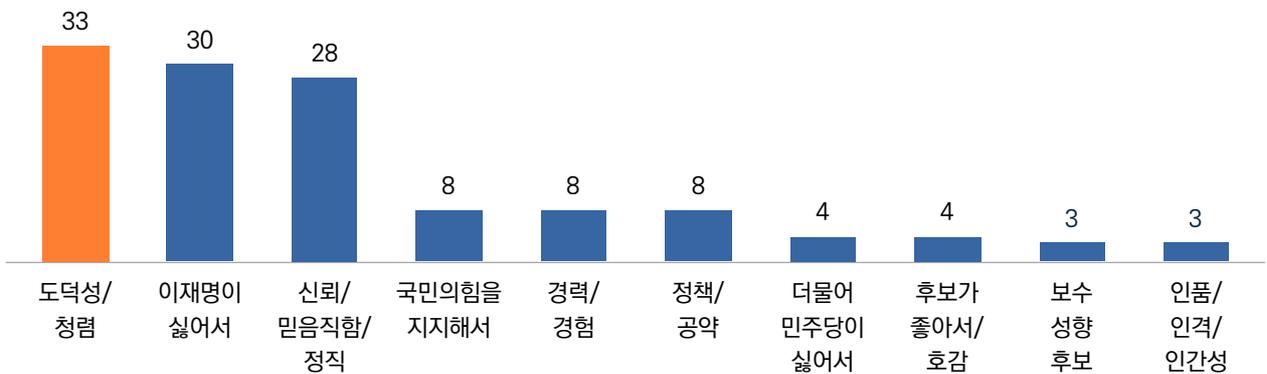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24호(2025년 6월 1주), 2025.06.05.

김문수에 투표한 이유, '도덕성/청렴'!

-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를 묻은 결과, '도덕성/청렴'(33%),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8%, '경력/경험' 8%, '정책/공약' 8% 순이었다.
- 특히 '이재명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김문수 투표자 중 30%나 차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 (김문수 투표자, 중복응답, 상위 10개, %)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24호(2025년 6월 1주), 2025.06.0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5 \(2025년 6월 2주\)](#)

- 이재명 대통령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총리 후보 적합 여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7호 \(2025년 6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기대감, 정당지지도,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중앙일보_2025.6.11.

사회 일반

[\[2025 대북인식조사\] 북한 이미지 및 남북관계평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6.11.

[\[팩트체크\] 지방 고령화의 민낯...노후 빈집이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_2025.6.12.

[거리 노숙인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노숙인시설·쪽방촌 고령화](#)

연합뉴스_2025.6.10.

[생활하수 속 불법 마약류 성분 4년 연속 감소](#)

연합뉴스_2025.6.12.

[서울시민 연간 문화예술 7.2회 관람...문화비 21만4천원 지출](#)

연합뉴스_2025.6.11.

[쉬는 청년 50만명, 일하는 노인 700만명](#)

연합뉴스_2025.6.4.

['한국인들 입국심사 때 줄 서지 마세요'...사상 첫 日여행 1000만명 돌파 가능성](#)

아시아경제_2025.6.11.

[소비자 평가 '새벽 배송' 1위... '결혼 서비스' 꼴찌](#)

조선일보_2025.6.11.

["재정 때문에 출산 포기" 한국 58%...유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아](#)

중앙일보_2025.6.10.

[\[단독\] 사무직마저 '환자 시술'...의사 없는 병원은 여전히 "재난"](#)

한겨레_2025.6.16.

[발달장애인 보호자 43%는 '혼자 돌봄'...10% "자살 생각"도](#)

한겨레_2025.6.15.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봉보다 중요한 건 '이것'...MZ세대가 직장 고르는 기준은](#)

국민일보_2025.6.12.

['최고의 직장'을 떠날 결심 "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한국일보_2025.6.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노인 23% 늘 때 노인진료비 37% ↑ ...노쇠 예방사업 추진"](#)

연합뉴스_2025.6.11.

[노인학대 연간 7천건 가해자 1위는 '배우자'](#)

매일경제_2025.6.13.

경제 · 기업

[한국 음식료품 물가 OECD 2위... "장보기 겁나네"](#)

국민일보_2025.6.16.

[\[단독\]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먹나... 정부, 시범사업 만지작](#)

국민일보_2025.6.12.

[기업 10곳 중 4곳 돈 벌어 이자도 못 낸다...역대 최대 비중](#)

한겨레_2025.6.11.

건강

["죽을 듯한 공포"...한 연예인의 고백 뒤 10배 폭증한 이 병](#)

중앙일보_2025.6.14.

기독교 · 종교

[정치로 갈린 20대 남녀... "교회가 대화의 장 열어야"](#)

국민일보_2025.6.12.

[여장로 임직 교회 확산, 교단 내 의미 있는 변화로 주목](#)

한국기독교공보_2025.6.9.

[미국 개신교 목회자 99% "사역 계속"... 연간 이탈률 1.2% 불과](#)

기독일보_2025.6.8.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대구성명교회 (담임목사 배준현)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 추천)

02
최적화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전문성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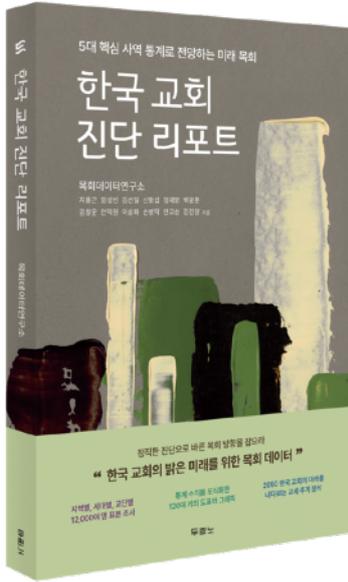


체계성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